메트로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제3013호 www.metroseoul.co.kr

무더위 지친 시민들 한강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물빛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똑똑한 집'…스마트 홈시대 활짝

홈 CCTV로 집안 관찰 카톡으로 전자오븐 작동

상상속의 기술이 현실화 이통사 서비스구축 박차

맞벌이인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먼저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안전이 걱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홈 서비스 덕에 걱정을 덜었다.

홈CCTV를 이용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데스크톱PC로 집안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 감지되면 경비업체에 신고하고 부모에게도 비상 연락이 간다.

A씨의 또 다른 고민도 해결됐다. 평소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에게 홈메이드 쿠키와 같은 간식을 만들어 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카카오톡 문자만으로 전자오븐을 작동할 수 있다.

전용 앱 채팅창에 '쿠키 만들기', '국 데우기' 라고 입력하면 아들의 귀가시간에 맞춰 따뜻한 음식이 나온다. 세탁기나 로봇청소기도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어 가사 도우미가 필요없을 정도다.

상상 속 기술이 현실화하면서 집이 똑똑해지고 있다. 이른바 '스마트 홈' 시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TV와 홈CC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가전과 디바이스 간 연결을 구현하고 있다.

IPTV를 이용해 외부에서 스마트폰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집안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계에서도 스마트기기 발달에 따라 생활가전 제품과 조명을 비롯해 모든 기기를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격 제어하고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통3사는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이 같은 스마트홈 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고 삼성, LG 등 가전업계는 스마트기기의 기술력을 앞세워 스마트홈 시대를 바짝 앞당기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한국, 미국, 영국 등 11개국에서 '삼성 스마트홈'을 공식 출시했다.

'삼성 스마트홈 앱'으로 구현되는 삼성 스마트홈은 올해 출시된 삼성 생활가전 제품과 스마트TV, 안드로이드 4.0 이상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서 연동된다.

이용자는 더운 여름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만들고 외부에서 세탁기를 작동해 귀가시간에 맞춰 세탁이 끝나게 할 수 있다.

LG전자도 채팅으로 기기를 작동하는 '홈챗' 기술을 선보였다. LG 홈챗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서 냉장고, 세탁기, 광파오븐 등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달 초 원격 디바이스 제어·관리를 위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타 산업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상 속 미래의 모습을 곧 피부로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y@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전당대회 투표는 벌써 진행중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 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코앞서 미사일 발사

北 군사분계선 근처 개성서 2발…올해 14번째

북한이 13일 새벽 개성 북쪽지역에서 동해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1시20분과 1시30분께 2차례 걸쳐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500여㎞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은 개성 북쪽으로,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0여㎞ 떨어진 지점"이라면서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사는 9일 새벽 발사한 이후 4일 만으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다.

특히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은 9일 군사분계선에서 40여㎞ 떨어진 황해도 평산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점보다 더욱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다.

군 관계자는 MDL 부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미국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과 자신들의 소위 '특별제안'을 남측이 수용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개성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서청원·김무성 서로 "승리 자신"

오늘 잠실서 전당대회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14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친박(친박근혜) 좌장그룹의 서청원 의원과 한때 친박 좌장이었다가 현재 비주류 대표격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당·청 관계, 대야 관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 대표는 당장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를 진두지휘, 원내 과반의석 회복이라는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당권경쟁 과정에서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감정싸움까지 벌이며 전면전을 펼쳐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 치유와 당 단합의 과제도 떠안아야 한다.

두 유력주자는 전당대회 하루 전날 서로 승리를 장담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이들 외에도 이인제·홍문종·김을동·김영우·김태호·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 등 9명이 도전했다. 1인 2표제의 선거인단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14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을 상대로 현장 투표를 실시한다.

/김민준기자

세월호특별법 염원 담은 노란 종이배 13일 국회 본청 앞의 세월호 사고 팽목항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가족들의 염원을 담은 노란 종이배를 계단에 놓았다. 이들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날 마라톤 조율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김명수·정성근·정종섭 운명은…

야당 요구·여론 고심… 최대 2명 탈락 가능성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이번주 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 머물면서 참모들과 함께 2기 내각 각료 임명과 관련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들 3명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4일 임명을 철회할지 강행할지에 대한 결자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성·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들을 비롯해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내세워 청와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 향배를 주목하며 최근까지 김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은 임명을 강행한다는 분위기였다.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짓 아파트 사건으로 청문회 위증 논란을 일으켰던 정성근 후보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문체부 공무원, 아리랑TV 직원 등 10여 명과 폭탄주를 만들어 마신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여권 내에서도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이들 2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는 안된다며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결국 국회와의 '소통정치'를 강조한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지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다른 두 후보자에 비해 나쁘지 않은 만큼 임명 강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민준기자 mkim@

뉴스&뉴스

교육부 논문 표절 등 기준 구체화

● 김명수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13일 "논문 표절·중복게재 등 추상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제헌절 국회 의사당 1층 개방

●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6주년 제헌절인 17일 국회 방문객들에 의사당 앞쪽 1층 출입을 허용, 주말에 국회 잔디마당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열린국회 선포식'을 갖는다.

의사당 앞쪽 1층 출입구를 일반 방문객들에게 허용한 것은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GOP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배치

● 군이 강원도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최전선 GOP(일반전초) 부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3일 "GOP 부대는 근무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어른 시일 내 20여 명을 확보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경력자 5급 공무원 130명 선발

● 안전행정부는 13일 민간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를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인 5급 민간경력자 선발시험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채용 인원은 110개 직무 분야에서 130명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실사단 내일 방북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관련 2차 방북 실사단이 15일 방북한다.

13일 통일부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정부와 기업 관계자 38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은 지난 2월 1차 현장실사에 이은 것으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한·러 양국간 신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방북해 나진·하산 철도 구간과 나진항 3부두 등 현장을 실사할 예정이다.

/조선일기자

감사관마저 뇌물받아 도박

철도학교 인맥 동원 수억 챙겨…검찰 '철피아' 수사 확대

철도시설과 부품 납품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13일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레일체결장치, 교량방수, 도면관리, 절거공사 등 철도시설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씨는 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들과 학교 인맥으로 연결되거나 철도 관련 감사 현장에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과 관련해 경쟁사인 P사 제품의 문제점을 전달받았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AVT에 유리한 방향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감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여회에 걸쳐 AVT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 교량방수·철도역사 설계감리·도면관리 전거공사, 토목공사 등 철도 시설 관련 거의 모든 분야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AVT 등 9개 업체로부터 각각 600만~8000만원씩 모두 2억2000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받은 돈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즐겼으며, 차명계좌에는 카지노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흔적도 발견됐다. 더욱이 회식비, 주택구입, 가족 입원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김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해병대 첫 전투 전승행사 해병대는 13일 전북 군산시 일대에서 6·25전쟁 당시 해병대 최초 전투인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투 전승기념행사를 해병대전우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연합뉴스

맛집 도로명 주소 쉽게 찾는다

정부 10월부터 검색 제공

이르면 10월부터 맛집·상점 등의 상호명으로 도로명 주소를 지금보다 더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안전행정부는 정부 도로명 주소 안내 사이트인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상호명 검색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은 기존의 지번 주소나 건물명으로 검색하면 도로명 주소가 안내되지만, 정확한 지번 주소나 건물을 대장에 나오는 건물 명칭으로만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상호명만으로 도로명 주소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포털 업체의 도움을 받아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인어가 방독면 쓴 이유는… 부산과 울산·경남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설계수명을 넘겨 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권고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관피아법' 통과되기 전에…

퇴직 관료들 줄줄이 재취업 승인 논란

이달말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달 공공기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이 승인됐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말 회의를 열어 퇴직관료 17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한 결과 14명의 사기업체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와 지난해 5월 농림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로 퇴직한 B씨 등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삼성에버랜드의 자문과 한영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취업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직무관련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에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공무원 중 일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았으니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피살 재력가 장부에 '검사 200만원'

2005년 강서구 근무… 정치인·경찰도 등장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의혹 사건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67)씨가 현직 검사에게 200만원을 지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숨진 송씨가 최근까지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중 한 날짜에 현재 수도권의 한 지검에서 근무 중인 A부부장 검사의 이름과 200만원의 금액이 나란히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일기록부에 A검사 이름이 적힌 날짜는 2005년 하루이며 돈의 용도는 따로 명기되지 않았다. A 검사는 2003~2005년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실제로 A검사가 돈을 받았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검사는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기록부에는 A검사와 정치인, 구청·세무서 공무원 등 10여명뿐 아니라 경찰 이름도 여러 명 기재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보준기자

서울시, 미래 MICE 이끌 전문인력 양성

서울시는 미래 MICE산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MICE 업계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서울 MICE 전문인력양성 과정'을 개설, 50명을 선발해 무료 교육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서울 MICE 실무교육'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배울 수 있는 실습 과정(2개월)인 '서울 MICE 취업지원'으로 편성됐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8월6일부터 22일까지 컨벤션 기획·운영, MICE 등록 및 숙박 업무 프로세스, 행사유치 마케팅 등 실무교육을 받는다. 또 과정 이수자 중 우수한 교육생 15명은 선발해 두 달간 MICE업계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급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5세 미만 미취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송파, '가족서포터즈' 발대

서울시 송파구가 잠실야구장에서의 금연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연·절주 가족서포터즈'를 모집, 지난 12일 구청 4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경기가 있는 주말에 야구장으로 나와 금연·절주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강북 구민대상 후보' 접수

서울시 강북구가 '2014 강북 구민대상 후보자'를 9월1일까지 추천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선행·봉사, 모범가족, 문화예술 등 총 6개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자로 구는 부문별 1인을 선정해 10월 강북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할 계획이다.

음식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서울시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RFID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관내 공동주택단지 174곳 전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공모전

보건복지부와 파랑새포럼(사무국 대한보건협회)이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회째인 이 행사는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응모 주제는 '음주와 대중교통 안전'이다.

응모 기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음주폐해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관련 양식 작성 후 이메일(kpha0125@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작품수는 1인당 5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랑새포럼 홈페이지(www.nts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일생 동안 10.5년 앓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시간은 10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숙자 부연구위원과 정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를 통해 2011년 태어난 아기의 건강수명이 70.74세라고 13일 밝혔다.

또 2011년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1.20세였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10.46년 동안 질환을 앓게 되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건강수명이 68.79세, 여성이 72.48세로 조사됐으며 여성의 기대수명(84.45세)이 남성(77.65세)보다 6.8세 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2010년 건강수명은 70.44세로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은 1년 사이 0.30년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기대수명이 0.41년 늘어 기대수명이 증가된 만큼 건강수명이 따라오지는 못했다.

보사연은 이와 같은 이유를 만성질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인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고숙자 부연구위원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바람직한 생활습관과 질병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개인과 사회의 투자가 증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사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해 건강수명을 산출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폭포 맞으며 암벽타기 13일 오전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청송 얼음골에서 열린 '2014 청송 썸머 전국 드라이툴링대회'에 참여한 한 시민이 이벤트경기에 참가해 암벽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공단, 안전 체험 행사

안전보건공단은 제47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안전 관련 행사를 마련해 근로자와 사업주, 범국민에게 안전 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주말인 12~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이케아에서 낮잠을…

metro HongKong

'피서 고객'에 골머리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전시 가구에서 잠을 자는 고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케아 베이징 지점에는 매장으로 '피서' 나온 고객들이 쉽게 눈에 띈다. 소파 양쪽에 편히 기대 달콤한 잠을 청하는 여성도 있고, 아예 신발은 벗고 침대에 올라가 이불까지 끌어안고 자는 남성도 있다.

한 여자아이는 어린이 코너에 있는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갔다. 아이의 부모는 "가족이 함께 쇼핑을 하러 왔는데 아이가 오후가 되자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했다.

침실 가구 코너 직원은 "오랜 시간 소파를 차지하는 고객은 다른 고객의 구매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비켜달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고객들과 생기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둔다"고 밝혔다. 이어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매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주말에는 특히 많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지점 마케팅 부서 관계자는 "이케아에 오는 고객들은 매장을 편안한 휴식처로 여긴다. 우리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고객들이 공공장소 에티켓을 지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이스라엘 민간인 살상 멈춰라"

유엔 "가자지구 공습 국제법 위반"…인권활동가 '인간방패' 자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민간인 살상'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나비 필레이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이 반인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 어린이를 포함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면서 이스라엘이 민간인 살상을 금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규모 로켓 공격도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모든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정의 구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자제를 촉구했다. 유엔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인 거주지(가옥)를 제외한 민가에 대한 공격은 국제 인권 관련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자의 77%는 민간인이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떠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우리를 막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닷새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57명으로 늘었다. 이날 하루에만 52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장애 아동 3명과 간호사 등 민간인이 다수 포함됐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민간 시설로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의 인권 활동가 8명은 '인간방패'를 자처하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토마토 맛좀 볼래? 12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토마토 싸움'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토마토를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보고타 다리는 범죄 소굴?

metro Colombia

Policías hasta en los puentes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는 보행자용 다리가 300개나 있다. 이 위를 걷는 것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 안전 트문 어두운 밤이면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범행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의 치안 상황은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안 좋은 편에 속한다. 최근까지 지속된 내전과 마약 조직의 활동으로 납치·살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고타의 보행자용 다리 위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단순 절도 사건도 많지만 살해 및 암살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최근 치안 당국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 대책을 들고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살해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면서 "무장 경찰의 순찰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몰리는 밤시간에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타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시민은 "경찰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거의 보이지 않다가 교대할 때면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美 2, 3위 담배회사 합병 논의

갈수록 줄어드는 흡연인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담배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내 2위 담배회사인 레이놀즈 아메리칸과 3위 담배회사인 로릴라드가 조만간 합병 발표를 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이놀즈가 로릴라드를 인수하는 형태의 합병이 성사되면 560억 달러(57조640억원) 규모의 거대 담배회사가 1위 회사인 알트리아그룹에 맞서는 형태로 시장이 바뀐다.

알트리아그룹은 담배 '말버러', 레이놀즈는 '카멜', 로릴라드는 '뉴포트'의 제조사다.

미국 담배시장 점유율은 알트리아가 50%에 육박하고 레이놀즈와 로릴라드가 합병하면 4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합병이 발표되면 미 반독점 규제 당국이 두 회사의 복점(동일제품을 공급하는 2개 회사의 시장독점)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 흡연율은 1965년 43%에 달했으나 10년 전에는 21%로 떨어졌고 현재는 18%를 기록하고 있다.

/여지훈기자 [illegible]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88.74 (-14.10)	코스닥 558.58 (-2.74)
금리 2.59 (변동없음)	환율 1018.00 (+5.20)

경기 불황 하반기 금용사 취업 '찬바람'

작년보다 채용 줄고 안 뽑는 곳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당수 금융사들이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일부는 아예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보험사들은 하반기 채용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사람을 뽑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생명의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규모는 30~40명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 신규 채용이 없었으며 하반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과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도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다.

손보사들도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뽑지 않는 곳도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상반기 33명과 하반기 15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하반기에만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흥국화재과 삼성화재는 아직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49명을 채용했던 MG손해보험은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을 20명으로 줄였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하반기 19명에서 올해 하반기 10명으로 줄인다.

◆하나·기업銀 절반 수준 채용

은행권과 증권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00명과 200명 안팎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올 상반기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채용 규모는 지난해 200여명과 400여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된다.

국책은행들도 채용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각각 70명과 40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올해는 채용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지난해 각각 70명과 31명을 채용했던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채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하반기 공채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 것으로 보여 치열한 취업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보라기자 mint@metroseoul.co.kr

뉴스&뉴스

KT는 강원도 강릉시 샛돌지구에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 재배시설인 '스마트 식물공장 토탈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KT 제공

ICT로 농작물 키운다

●KT는 강원도 강릉시 샛돌지구(전원 마을)에 정보과학기술(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 재배시설인 스마트 식물공장 토탈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한 것이다. 강릉 샛돌지구 주택 분양 대상자에게 10평 규모의 스마트 식물공장 지분을 제공하고, 첨단 시설에서 키운 버섯재배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순홍기자

밥캣, 100만번째 로더 생산

●두산인프라코어는 소형 건설장비 부문인 밥캣에 1958년 로더(loader)를 처음 생산한지 56년만에 누적 생산량 100만대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굴삭기 시장 규모가 연간 약 1만 대임을 감안할 때 100만대는 국내 굴삭기 100년치 판매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밥캣 관계자는 "밥캣의 로더 100만대 생산은 세계 소형장비 제조사 가운데 유일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imdt@

KT 스마트렌탈 출시 2주년 맞아 고객혜택 강화 KT는 올레 인터넷과 올레 tv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렌탈 TV와 PC를 최대 50% 할인된 수준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KT 제공

아파트 전세값 역대 최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평균 68.8%로 2002년 4월(68.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 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69.5%(2001년 10월)와 비교해 불과 0.7%포인트 차이에 수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다는 의미"라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줄어지고 전세가 상승폭은 커져 전세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전세가율이 7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 남구가 81.3%를 기록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를 넘긴 지역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등 전 지역이 70%를 넘겼다.

대구는 서구(69.1%)를 제외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이 70%를 웃돌아 평균 75.0%를 기록했다.

대전(71.1%)은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70%를 넘겼고 울산(72.2%)은 북구를 제외한 중구, 남구, 동구가 70%를 넘겼다.

그 밖의 지방 시도는 수원(71.1%), 안양(70.4%), 군포(72.6%), 의왕(72.3%), 오산(70.7%), 화성(73.6%), 강원(72.9%), 충북(71.5%), 충남(74.1%), 전북(75.2%), 전남(72.6%), 경북(73.5%) 등이 70%를 웃돌았다.

서울은 64.0%로 2001년 11월(64.4%) 이후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성북구(71.1%)가 유일하게 70%를 상회했으며 한강 이북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66.0%)이 한강 이남(62.3%)보다 높았다. /김두탁기자 kimdt@

SNS로 점친 월드컵 "독일 우승"

최고 인기 스타는 브라질 네이마르

소셜 네트워크(SNS)도 브라질 월드컵 열기로 뜨겁다. 14일 독일과 아르헨티나 결승전을 끝으로 폐막하는 브라질 월드컵을 SNS로 결산해본다.

이미지·동영상 SNS 인스타그램이 브라질 월드컵 참가 선수들의 인기도를 분석한 결과 브라질 국가대표 네이마르 선수가 팔로워 1위를 기록했다.

월드컵 초반부터 뛰어난 경기력으로 화제를 모은 네이마르의 팔로워 수는 900만명에 육박한다.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척추 골절 부상을 입은 후에는 팔로워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1위를 차지한 네이마르(왼쪽), 메시와 그의 아들 티아고. /인스타그램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팬들의 글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팔로워 2위와 3위는 각각 포르투갈 국가대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차지했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8위의 스페인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를 빼고 모두 브라질 선수가 차지했다.

이번 월드컵 이김왕자로 떠오른 콜롬비아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1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한편 트위터에서는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우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트위터가 브라질 월드컵 기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트위터 해시태그(#) 총량을 조사한 결과 독일이 796만3767건, 아르헨티나 780만5598건으로 독일의 우승을 점친 트위터리안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아르헨티나 해시태그 점유율은 각각 58%, 42%로 독일이 우세했다. /정윤아기자 unna@

로또복권						제606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5	6	14	20	[illegible]	2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illegible]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49,650,593
3등	5개 숫자 일치	1,417,534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illegible]
사장·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1 9
독자센터 (02)721-9809

포르투갈발 금융불안 충격파

글로벌 증시 출렁…하루만에 14P 하락
전문가 "과거와 같은 영향은 덜할 것"

포르투갈 2위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얼마 전 구제금융을 졸업한 포르투갈이 또 다시 유로존 재정위기의 소용돌이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간)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은 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포르투갈이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 위기론이 불거졌다.

지난 5월 3년 만에 구제금융을 졸업한 포르투갈은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도 통과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날 BES의 지주회사인 에스피리토 산토 금융그룹(ESFG)이 스위스은행 고객에 대한 단기부채 상환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월 BES의 모회사인 에스피리토 산토 인터내셔널(ESI)의 13억유로 규모의 회계부정이 적발된 상황에서 악재가 겹친 것이다.

포르투갈발 금융불안이 확산될 우려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출렁였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2% 하락했다. 개장 초 폭락했다가 낙폭을 점차 줄여나갔다.

유럽 주요 증시도 급락했다. 영국 증시가 0.68% 떨어졌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52%, 1.34% 하락했다.

국내 증시도 포르투갈발 우려를 피해가지 못했다.

코스피지수는 11일 기관의 순매도세에 14포인트 넘게 떨어져 1988.74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나타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0.42%만 소폭 올랐고 일본 니케이225지수(-0.34%)와 홍콩 항셍지수(-0.02%), 대만 가권지수(-0.72%)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유럽이 또 다시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로존이 과거 재정위기를 거쳐 금융불안에 대처할 다양한 안전장치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므로 과거와 같은 충격은 덜할 것"이라며 "유럽중앙은행도 적극적인 경기부양기조로 가고 있으므로 우호적인 펀더멘털이 형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권규백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지난 밤 미국증시가 개장 당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장중 낙폭을 줄여 결국 0.4%대 하락으로 마감했다"며 "미국증시에 끼친 여파 등이 크지 않으므로 포르투갈 우려가 단기이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2일 미국 증시와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하루 만에 일제히 반등 마감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삼성전자 '웨딩 마일리지' 행사 삼성전자는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삼성전자 웨딩 마일리지' 행사를 진행한다. 현금처럼 쓰는 최대 200만 원의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제공

숨은 혜택 찾아 알뜰 휴가를…

카드사 국내 여행객 겨냥 이벤트 쏟아져

"여자친구와 기껏 워터파크로 여행을 떠난 당신.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물음에 '각자 따로 해주세요'라고 답한다면 당신의 카드 사용 능력은 하수(下手)다. 지갑 속 잠자고 있는 카드만 잘 활용한다면 1명의 가격으로 비치볼과 파올, 사은품과 여자친구의 입장료까지 모두 무료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카드사들이 국내 여행객을 겨냥한 각종 혜택과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이 소유한 카드에 어떤 혜택이 숨겨져있는지 확인해 본다면 좀 더 알뜰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다.

먼저 BC카드는 오션월드와 오션 700, 블루캐니언 등 전국 26개 주요 워터파크에서 입장권을 결제할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워터파크에 따라 최대 동반 4인까지도 혜택을 준다.

특히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웰리흔트 워터파크에서 BC카드로 입장권을 결제하는 고객들에게는 시워키트, 비치타올 등을 제공하며 같은 기간 서울 도심의 특급호텔 패키지 상품도 40% 할인된다.

NH농협카드는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카라반 현장 결제 시 최대 50% 할인서비스와 함께 전국 유명 워터파크 20여 곳에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준다.

이밖에도 NH농협카드 회원이면 이용실적에 상관없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최대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와 서울랜드에서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본인 자유이용권을 각각 1만5000원과 60% 할인된다.

현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캐리비안베이,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에서 M포인트로 50% 결제할 수 있고 KB국민카드로는 전국 27개 워터파크를 이용할 때 최대 40%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도 전국 28개 제휴 워터파크에서 최대 40%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14 쿨 섬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오는 8월 24일까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5만원 이상 이용한 전표를 제시하면 파라솔과 튜브, 비치의자와 구명조끼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Code 9 Zone'도 운영한다.

/[illegible]기자 alive0203@

한국 지난해 GDP 14위

2009년부터 5년째 제자리

지난해 한국 경제규모는 5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13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전 세계에서 14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세계은행은 GDP 통계를 1년에 4차례 수정 집계한다"며 "적용 환율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의 새 기준 GDP 통계가 반영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서울외환시장의 환율을 적용해 산출한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미국 달러화 기준)는 1조3043억달러였다.

새 기준 GDP는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꾸고 연구개발(R&D) 지출을 무형고정투자(지적재산권)에 편입하는 등 GDP를 늘리는 효과를 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명목 GDP는 7.8% 증가했다.

그러나 연도별로 순위가 한 단계 정도 차이가 날 뿐 순위 흐름에는 별 변동이 없었다.

새 기준으로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순위는 2000년, 2001년 각 12위에서 2002~2004년 각 11위를 거쳐 2005년 10위까지 상승하고서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까지 하락했다.

이어 2009년 14위를 기록하고는 지난해까지 상승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했다. /[illegible]리아

집값 떨어지면 펀드 자금 유출

가계 자산 비중 큰 탓

집값이 떨어지면 1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환매의 1차적 요인은 주가와 펀드 수익률이지만 가계자산에서 비중이 큰 부동산가격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전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률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설정액 증가율에 1년가량 앞섰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2006년 11월~2007년 9월 집값은 전년 동월보다 매달 9% 이상씩 올라 상승 폭이 컸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는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전년 동월보다 15% 이상씩 상승했다.

반대로 2009년 3월~11월에는 집값이 전년 동월보다 떨어지거나 1% 미만 오르는 데 그쳤고, 그로부터 1년 6개월가량 지난 2010년 10월~2011년 5월 펀드 설정액은 13% 이상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펀드 투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개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내 가계·비영리단체의 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다.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은 52%다. /김현정기자

미래부-방통위, 엇갈린 톱니바퀴… '혼란'

Issue&View
미래부-방통위의 불통(不通)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단말기 유통법' 분리 공시제 도입 갈등
보조금 지급이냐… 요금할인 혜택이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고시는 총 11개로, 이 중 미래부 소관 고시는 5개, 방통위 소관 고시는 6개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안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25만~35만원 ▲요금제에 비례하도록 보조금을 책정하되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도 보조금 혜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간 소관 고시가 나뉘면서 일부 문제도 야기됐다. 최대 핵심 쟁점인 제조사·이동통신사 간 '분리 공시제'가 말썽이 된 것.

보통 휴대전화 가입시 제공되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별, 요금제별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의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안에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리 공시제 필요성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가 된 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도입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분리 공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 소관 고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야기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분리 공시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고시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를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도 원하는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고시 내용은 분리 공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은 기본적으로 이통사 개별 지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고시대로라면 소비자들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개별 제조사가 아닌 전체 제조사 장려금의 합만을 공시받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지기 어려워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한 뒤 20일 이후에 규제개혁심사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20일 안에 분리 공시 여부가 결정될 텐데 만일 분리 공시를 할 수 없으면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 마련 과정만 보더라도 미래부와 방통위 간 소통이 얼마나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업무 협업이 절실한 두 부처가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 같은데 향후 정책 추진에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블릿PC 판매량 처음 줄었다

10인치대 이상의 화면을 채택한 태블릿PC가 생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5인치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 수요가 늘면서 7~8인치 태블릿의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업체 NPD디스플레이서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세계 시장에서 태블릿PC가 5600만대 팔려(공급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처음 판매량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이 조사업체는 올해 태블릿PC 판매량 예측치를 2억8500만대로 낮춰 잡았다.

시장을 주도하던 7인치 태블릿PC가 '패블릿'으로 불리는 5인치대 대형 스마트폰의 위세에 눌린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태블릿PC에서 7인치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정점을 찍었지만 올해부터는 줄어들 전망이다. 그 대신 8~10인치대 태블릿PC의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블릿PC 판매 역성장은 보통 2년마다 신제품을 사는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PC의 교체 주기는 1~2년 이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성훈기자 zen@

휴대전화로 택시 정보 한눈에. 2014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개막 100일을 앞두고 부산 벡스코에서 성공 개최 기원행사가 12일 열렸다. 휴대전화로 주변 택시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모델이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새 스마트폰은 갤럭시 알파?
최고급 라인업 3분기 출시 유력

삼성이 기존의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외에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업을 3분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11일 전자·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8월 중 최고급 스마트폰 시리즈 2종 외에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새 시리즈 제품은 '갤럭시 알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제품이 광대역 LTE-A 통신망을 지원하는 등 삼성의 또 다른 최고급 라인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이 기존의 스마트폰 시리즈 외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데는 2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기자

경험과 스펙을 한꺼번에…
일석이조 '공모전' 풍성

여름방학을 맞이 경험과 스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공모전 열기가 뜨겁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첨단 화학 섬유·소재 선도기업 휴비스에서 아이디어 공모전(www.huvis.com)을 16일까지 연다. 응모자격은 전국 4년제 이공계 대학교 3·4학년생과 대학원생이다. 공모주제는 스마트 융합섬유 분야 아이디어 제안이다. 수상팀은 상금은 물론 채용 특전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에서도 17일까지 '삼성 기어 앱 챌린지(gearapp.challengepost.com)'를 마련했다. 응모부분은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 2개의 라운드로 구성되며 수상작에는 총 125만 달러(약 12억7000만원)의 상금과 다양한 마케팅 혜택이 있다.

노동부도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www.2014svc.com)를 23일까지 진행한다. 응모자격은 소셜벤처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이 있거나 평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아이디어 창업, 글로벌이다.

뉴트리라이트에서도 영상공모전(www.nutrilifecampus.co.kr)을 27일까지 연다. 참가자격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이다. 개인,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주제는 브랜드 스토리, 건강이 전하는 스펙 등이다. 대상·최우수상 수상팀 전원은 광고회사 TBWA 인턴 면접 기회가 있다.

보건복지부도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 영상·사진 광고 공모전(cough-etiquette.kr)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주제는 올바른 기침예절(휴지, 손수건 사용, 옷소매 등) 실천 등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부동산펀드, '저위험 중수익' 도전

금융가 사람들

■강준 지지자산운용 본부장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얼마의 '차익'을 거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보유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로 관심이 이동한 것이다.

이는 곧 소유권에 대한 개념 변화로 연결되고 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투자자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운영수익이 주가 된다면 명의는 누구여도 상관이 없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명의를 맡기냐의 문제만 남을 뿐이다.

강준(사진) 지지자산운용 본부장은 "부동산시장 변화와 투자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상품이 바로 부동산펀드"라며 "절차에 의해 설립된 운용사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대중화가 덜 된 탓에 '부동산펀드'라는 명칭만 들어봤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아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강준 본부장은 "부동산펀드란 주식·채권 대신 말 그대로 부동산에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용사마다 취급하는 상품은 다르지만 개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100~200억원대 중대형 상가·빌딩 등이 대상이 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때 부동산펀드라고 해서 개인들은 모르는 특별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경·공매, NPL, 중개업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목표 수익률에 적합한 물건을 취합한 뒤 운용사가 정한 기준에 맞는 물건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강 본부장은 "부동산의 기본은 발품인 만큼 개인이 물건을 찾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저위험 중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사모펀드라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시 여부조차 모르곤 한다"며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사 등에 사전에 펀드가 출시되면 안내를 해달라고 말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펀드를 가입할 때는 상권, 우량 임차인 파악, 환금성 등을 따져보고 해당 운용사가 기존에 취급했던 펀드들의 수익률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옥기자 pso@

5000원이면 친구도 車보험 적용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입니다.

먼저 휴가철 주차해 놓은 차량이 집중 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놔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왔다면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과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보험이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람과 여름철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70만원 기준으로 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특약 가입 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을 떠나기 최소한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가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동시가입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길 교통사고 또는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휴가를 앞두고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이용횟수는 제한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들어간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보상한도 안에서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 1급은 2000만원, 후유장해 1급은 1억원 보상가능합니다.

보상 청구는 12개 손해보험회사에 하면 됩니다.

<손보사 연락처>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MG손해보험(1588-5959), 흥국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LIG손해보험(1544-0114), 동부화재(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더케이손해보험(1566-3000), 하이카다이렉트(1577-1001)

/정하니기자 honey@metroseoul.co.kr

붐비는 'e편한세상 광주역' 모델하우스 지난 11일 문을 연 경기도 광주시 역동 대림산업 'e편한세상 광주역'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약 4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대림산업 제공

휴가 앞두고 막판 분양 '봇물'

주간 분양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막바지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시장에서 멀어지기 전 건설사들이 서둘러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11곳, 당첨자 발표 12곳, 당첨자 계약 7곳, 견본주택 개관 5곳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14일 LH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 A2블록 공공임대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1~59㎡, 총 1444가구 규모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51A㎡가 4100만원에 45만원, 59㎡가 5200만원에 50만원이다. 2016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17일 포스코건설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2단지 '강남 더샵 포레스트'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전체 400가구, 114~244㎡로 구성됐다. 서울지하철 3호선 수서역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망과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날 KCC건설도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일대 '이천 설봉 KCC스위첸' 1순위 공급을 진행한다. 59~84㎡, 총 562가구 규모다. 설봉초, 증포중, 이현고, 이천고, 양정여고 등이 인접했고, 이마트, 하나로마트, 이천시보건소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날 호반건설이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1-C4블록 '천안불당 호반베르디움2차'를 공급한다. 84~174㎡, 총 573가구로 구성된다. 반경 1km 이내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불당초·중, 월봉고 등이 인접해 있다.

/박선옥기자 pso@

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별제권도 알려주지 않다니…"

얼마전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를 받아 신문사나 방송사가 모두 별제권이란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기사를 썼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은행이 담보를 잡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아예 관계없이 집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자신의 월 소득으로 빚을 갚아가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금지명령을 고대하게 된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직후 1주일 정도 안에 나오는데 채권자의 무리한 독촉이나 월급 가압류 등을 금지한다. 개인회생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기서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모든 권리 행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착각이다. 바로 별제권은 예외다. 즉 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 썼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이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일시 중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곳이 많으니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날벼락을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제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www.lawhelp.kr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임의택의 차차차

■ 기아 쏘울 EV

1896년 뉴욕 시내에는 7만3746마리의 말이 있었고, 하루에 1200~2000톤 정도의 말똥이 발생했다. 무려 50m 수영장 1~2개의 분량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보급대수가 늘면서 마차는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더불어 말똥으로 인한 전염병도 줄어들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보편화된 지금은 대기오염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자동차업계의 노력은 전기차(EV)와 수소연료연료전지차(FCEV)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블루온을 내놨고, 2013년에 르노삼성 SM3 Z.E.와 쉐보레 스파크 EV가 출시되면서 전기차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올해 4월에는 기아차가 쏘울 EV의 일반 시판에 나서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 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 남양연구소에서 시승했다. 이번에 며칠간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난번 시승이 맛보기였다면 이번에는 전기차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가 포인트였다.

쏘울 EV는 가솔린 모델과 달리 두 가지의 전용 컬러가 있다. 시승차는 흰색 차체에 하늘색 지붕으로 꾸며졌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 있고 전용 휠을 갖춘 점도 차이점이다. 쏘울 EV는 쏘울 가솔린 모델에 비해 210~244kg,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62~100kg가 무거웠다. 늘어난 무게는 차체 바닥에 깔린 배터리 때문이다.

▲한 줄 평가: 레이 EV에 비해 주행거리가 늘었고 승차감도 좋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평점: ★★★★ (만점은 별 다섯 개 반은 ☆, 는1/2)

차체 무게는 늘었지만 출발은 가뿐하다. 제원상으로는 0→100km/h 가속이 11.2초지만 실제로는 더 빠르게 느껴진다.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최대토크가 발휘되는 전기차의 특성 덕분이다. 최대토크는 29.0kg·m로 쏘울 가솔린 모델(16.4kg·m)의 두 배에 가깝고 디젤 모델(26.5kg·m)보다도 높다. 소음 없이 가속되는 느낌이 매우 독특하다.

쏘울 EV는 최고출력 81.4kW(111마력)의 전기모터와 27kWh의 배터리를 장착했다. 이는 국산 전기차 중 스파크 EV(105kW, 143마력) 다음으로 강력한 성능이다. 르노삼성 SM3 Z.E는 70kW(95마력)이고 기아 레이 EV는 50kW(68마력)이다. 핸들링은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보다 더 안정돼 있다.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 있어 무게 중심을 낮췄고, 무거워진 차체에 맞춰 서스펜션을 새로 셋업한 덕분이다.

기아차가 밝힌 주행거리는 148km. 시승차를 받았을 때 배터리의 70% 가량이 남았으므로 100km 남짓한 거리를 달릴 수 있었다. 충전소 리스트를 먼저 살펴봤더니 다행히 집 근처 2km 거리에 충전소가 있다. 목적지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주행가능거리가 두 자리 수로 떨어지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가솔린차를 몰았을 때 주행가능거리가 50km 정도 남으면 경고등이 들어왔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집 근처 이마트 주차장에 들어서니 전기차 충전기가 한쪽에 넉넉하게 마련돼 있다. 51%의 배터리가 남은 상황에서 충전시간은 17분이 걸린다는 메시지가 충전기에 표시됐다. 주유하는 것에 비하면 긴 시간이지만 급한 일이 없다면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배터리 수명을 고려한다면 급속보다는 완속 충전을 이용하는 게 낫다. 쏘울 EV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전기차가 급속 충전 시 80%까지만 충전되도록 설계하는 것도 배터리 수명을 고려한 것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2014 서울오토살롱, 튜닝시장 열었다

누적 방문객 85만명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애프터마켓·튜닝 전문전시회인 2014 서울오토살롱이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 3층 C홀에서 열렸다.

2003년 민간 주도로 처음 열린 서울오토살롱은 자동차 튜닝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누적 방문객 총 85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국내 애프터마켓 및 튜닝 시장의 전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12회째를 맞는 올해부터는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최 행사로 열리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예년 전시회는 튜닝 부품, 카 액세서리, 자동차 내·외장 관리용품·서비스, 블랙박스, 카오디오, 자동차 자동제어시스템과 튜너 및 완성차 업체가 참여했다. 올해에는 퍼포먼스 튜닝 부품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대신 차량관리용품 업체와 블랙박스 업체 등이 인기를 모았다.

또 브라부스, 압트 등 독일 튜너의 차량을 수입 판매하는 아승오토모티브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고, 국내 튜닝 휠 시장을 선도하는 '렌즈' 에서 대형 부스를 차려 관람객을 모았다.

이 외에도 튜닝카 페스티벌, XTM 튜닝차량 경매 이벤트, 드레스업 특별관, 카오디오 특별관, 리스토어 특별관, 튜닝산업 활성화 세미나, 전기자동차 리더스포럼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렸다.

/양성운기자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BMW	320d	2,530	2,820	3,060	3,650	3,870
	520d	2,250	3,450	3,700	4,440	4,790
폭스바겐	뉴비틀	1,420	1,600	2,050		
	골프6세대	1,450	1,970	2,230	2,480	2,530
	뉴제타			2,050	2,410	2,620
	뉴파사트	1,730	2,230	2,370	3,000	3,610
	티구안	2,240	2,010	2,840	3,180	3,610
벤츠	뉴C클래스	2,330	2,900	3,050	3,310	3,950
	뉴E클래스	3,150	3,700	4,000	4,580	4,850
	뉴S클래스	5,000	5,200	6,200	7,020	0,130
아우디	뉴A4	2,340	2,530	2,840	3,280	3,060

자료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현대차 고객은 좋겠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딜러 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으로 고객 접점 고급화와 고객 편의성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전 세계 딜러숍에 신규 딜러 시설 표준인 '글로벌 딜러십 스페이스 아이덴티티(GDSI: Global Dealership Space Identity)'를 적용해 차량 전시장과 고객 서비스 시설의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브라질 월드컵 기간을 겨냥, 지난 4월 브라질 상파울루에 GDSI를 적용한 대형 플래그십 딜러숍을 해외 지역에 처음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진출한 멕시코 전체 딜러숍 13개소에도 GDSI 적용을 마쳤다.

현대차는 올해 해외 지역 600개 딜러 시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GDSI 적용을 마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전 세계 6000여개 딜러숍을 점차적으로 리모델링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전시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 접점인 딜러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장소를 넘어 현대차와 고객이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설 개선을 추진했다"며 "딜러 시설 개선과 함께 고객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질적 개선에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미기자

'뻥 연비 논란' 누가 책임져야 하나

뉴스룸에서
임의택
<경제산업부 차장>

"빨리 좀 [illegible]주세요. 말을 안 들어요."(세월호 실종자 가족)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책임지고 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박근혜 대통령)

지난 4월 17일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과 실종자 가족들은 이런 대화를 나눴었다.

최근 국토부와 산자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 사고 때의 정부 대응이 떠오른다. 연비 측정을 놓고 제각각의 기준으로 조사해 놓고 산자부는 적합,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중재를 맡았던 기재부는 통일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사과하는 촌극을 보였다. 규칙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컨트롤타워도 없는 한심한 상황이다.

산자부는 이번 연비 테스트 모델에 대해 "소비자 불만 접수와 판매량이 많은 모델, 전년도 사후관리결과 오차율이 큰 33개 모델이 시험 대상이었다"면서 "수입업체들은 2013년부터 강화된 국내 연비규정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국내업체는 2012년 미국 연비보상 이후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자부의 테스트 차종 중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포드 익스플로러, 닛산 알티마 2.5, 토요타 프리우스, 푸조 3008, BMW 528i는 신고 연비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다. 반면 국내 업체의 경우 조사 연비가 신고 연비보다 낮게 나온 차종이 12개, 더 높게 나온 차종이 8개였다. 적극 대응했다는 국내 업체에서 12개 차종이나 낮은 연비를 기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토부가 복합 연비를 조사한 10개 차종의 결과를 보면, 닛산 큐브와 현대 포터2, 한국GM 라보는 측정 연비가 더 높게 나왔고 나머지 7개 차종(국산 6개, 수입 1개)은 같거나 더 낮게 나왔다. "국내업체들이 적극 대응했다"는 산자부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앞으로의 연비 관리는 국토부가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자동차업체들을 향한 소비자들의 연비 소송이 시작됐고, 이러한 소송은 앞으로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금이라도 연비에 관한 확실한 관리규정을 세우고 관리 감독하는 게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청와대 여야 정례회동 반드시 실행하라

지난 주 10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모처럼 의미 있는 웃음이 나왔다.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여야 국회 원내지도부가 한 자리에 만나 사흘 빠기에한 회동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는 박 대통령 초정 형식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회동 초부터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비교적 편한 모습으로 예정시간 45분 보다 훨씬 긴 1시간 25분이나 국정현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자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9월16일 국회 사랑재에서 김한길(당시민주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가진 지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때에는 시종 긴장감속에 '어색한 만남' 이었지만 이번 만남은 이례적으로 국정현안을 놓고 '정산적 이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정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특히 이번 청와대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박 대통령은 '정례회동'을 제안해 앞으로 여야 당대표를 포함한 확대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불통'의 장벽을 넘어 '소통'으로 이어지고 '대립과 정쟁'이 아닌 '상생의 정치'로 국리민복에 다가갈 전환점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 모임에서 국정현안의 많은 부분에 조율이 이뤄졌지만 장관 인사에서 야당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박 대통령의 용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수행능력 특히 인사문제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율 이 40%대로 무너졌다. 보수의 대 이탈이라는 혁신도미저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보여준 박대통령에 마이웨이 정치행보에 변화를 준 것은 다행이다.

지금부터 박 대통령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정치를 앞장서서 주진해야하며 야당도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정성에 무게를 두고 실천에 옮겨야 수권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두 발할 나위 없이 장기저성장의 그늘 속에 서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러한 판에 뜻하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 석 달이 됐는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까지 트라우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여야 정치권은 직시하고 가더니서 보다 생동감 있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와대 여야지도부 정례 회동을 반드시 지켜 그야말로 '상생의 정치'를 열어 나가야 한다.

포토프리즘

모터쇼 주인공 대체 누구야?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서울오토살롱'에는 수많은 관객이 몰려 열기 또한 대단했다.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는 자동차가 아니라 레이싱모델에게 향했다. 모터쇼의 주인공은 차가 아닌 모델이다.

/손진영기자 son@

ELS 열풍? 투자는 자기책임

기자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TV광고의 한 장면. 일반인의 요리 솜씨로 우승자를 가리는 케이블 오디션 프로그램 '마스터셰프'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의 질문에 주가연계증권(ELS)을 요리에 빗대 설명한다.

"주가는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ELS는 주가가 이렇게 흔들려도 정해놓은 선 위에만 있으면 약속된 수익을 맺을 수 있죠. 이 요리처럼 말입니다"라며 도시락에 든 볶음밥을 선보인 참가자가 우승자로 선정됐다. KDB대우증권이 ELS라는 금융상품을 알리기 위해 선보인 광고 시리즈의 일부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하자 중수익 이상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가 ELS와 같은 상품에 몰리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ELS 발행금액은 1년새 20% 넘게 늘어났다.

수익률은 어떨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ELS의 연환산수익률은 원금비보장형이 7.4%, 원금보장형이 3.8%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금비보장형을 선택했다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상환된 원금비보장형 ELS 중에서 손실상환된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연환산손실률은 14.4%였다.

또 지난해 말 ELS 잔액 중에서 주가가 크게 흔들려 손실발생가능구간에 도달한 적이 있는 금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0.7%에 달했다.

최근 조기상환 조건을 확대하거나 2~3개 지수를 동시 추종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상품이 늘고 있지만 투자는 결국 '자기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하는 ELS 투자전략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3의 침팬지

인간문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씨앗을 뿌리고 나서라거나 문자를 발명하고부터라거나 하는 식의 설명들이 준비하다. 서양의 경우 특이한 점 하나는, 문명의 대대적 파괴 이후 새로운 출발이 있었다는 집단적 기억이다. 물론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를 말한다.

대홍수는 다행히 얼마 안 되는 생존자를 지상에 남겨 놓게 된다. 할리우드 영화는 이 "대홍수" 테마를 놓치지 않고 극화하는데 전문가다. 외계인의 습격, 질병의 확산, 핵전쟁,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는 모두 대홍수의 변형판이자 문명과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사건들이다.

1968년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맡았던 <혹성탈출> 시리즈의 제1편은 1963년 프랑스 작가 피에르 불레의 공상과학소설이 그 원작이다. 어느 행성에 착륙한 지구인들이 모든 문명이 파괴되고 인간은 유인원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현실을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목격하[illegible] 알고 보았더니 그곳이 다름 아닌 지구였다는 이 설정은 핵전쟁으로 인한 파멸을 경고한 작품이기도 했다.

최근 개봉된 <혹성탈출>은 침팬지 실험과정에서 유출된 질병의 확산에 따른 지구문명의 파멸과 이후 벌어지는 생존자 인간과 지능이 뛰어난 결존 유인원 사이의 전쟁과 평화를 다루고 있다. 유인원의 지도자는 시저라는 이름을 가진 큰 몸집의 침팬지로 신중한 판단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유인원 집단을 이끌고 나간다.

<총 균 쇠>의 저자인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질학자이자 인류문화학자 제어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작 <제3의 침팬지>를 통해 침팬지와는 단 2퍼센트의 유전학적 차이밖에 없는 제3의 침팬지 인간의 진화를 규명한다. 그 진화는 "거대한 도약"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다시는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경로를 만들어 놓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인간이 다른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자기 종과 문명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임을 일깨우고 있다.

<혹성탈출>의 시저는 "유인원은 다른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그 사회의 제1 조로 삼는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멸종하기 때문이다. 노아의 때에는 대홍수 이후의 문명을 기약할 수 있었지 모르나 오늘날에도 과연 그런 "이후"가 가능할까? 이제부터의 진화는 순전히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을까? 제3의 침팬지 앞에 놓인 선택이다. 2퍼센트의 차이 그 내용은 아직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허리, 목 디스크는 명품 치료인 고주파로 10분이면 끝!

평소 허리가 불편해 동네병원에서 신경 약물치료를 받아온 62세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이유 없이 요통 및 우측 골반 통증, 심한 바지 당김 등이 생겨 유명 척추 전문병원을 내원했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박씨는 제4, 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를 진단받았으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고주파 열 치료술(고주파 수핵 감압술)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시술 후 증상이 오히려 악화됐고 이에 병원에서는 응급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이 두렵고 부담이 되던 박씨는 결국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강서조이스병원을 찾았다.

담당 주치의인 최원우 강서조이스병원 대표원장은 말기 디스크엔 적용되지 않는 고주파 열 치료술을 받았으며 의사의 미숙한 시술 경험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관을 이용해 내시경을 집어넣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자리로 집어넣은 다음 고주파를 통해 디스크를 수축·응고시키는 고주파 내시경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박씨는 증상이 바로 호전돼 자료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고주파 디스크 시술은 급성 또는 중기 이상 디스크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 시술은 말기 디스크·협착증·고령 환자에게 적합

이처럼 강서조이스병원은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고주파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을 받아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전문의가 직접 환부를 확인하며 치료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약물로 염증 치료까지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다.

또 강서조이스병원은 말기 디스크 환자나 수술이 어려운 노인 및 성인병 환자를 위한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실시한다. 이 시술은 1.5㎜ 굵기의 관을 통해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넣고 좁아진 척추관을 넓힌 후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쏴 염증을 제거하면서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다. 고주파 열 치료나 고주파 특수 내시경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적합하며 시술 시간이 짧아 회복 속도가 빠르며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맞춤형 치료 실시

이와 함께 강서조이스병원은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실시한 후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초·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하게 신경 주사 치료를 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중기 이상의 환자들은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받게 된다.

게다가 병원은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며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체계화했다. 문의: 02)2698-2200·1800-3800

/정리=기자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 '보건의료대상'

365일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환자 위한 시스템 높이 평가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센터장 김용재)가 최근 서울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 부문 대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용재(오른쪽)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장이 최근 열린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대목동병원 제공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한 보건의료대상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보건산업 발전에 앞장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한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후원을 맡았다.

센터는 외래 위주가 아닌 응급실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 혈관 시술팀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는 ESC(Ewha Stroke Code)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2012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로부터 뇌졸중 진료 분야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인 '임상 진료 프로그램 인증(CCPC)'을 획득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뇌졸중 진료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한 평도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자

햄스트링 부상, 젊은 남성 주의해야

심평원 조사 결과 환자 3명 중 1명이 10~20대

젊은 남성들은 축구를 할 때 햄스트링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자료를 이용해 둔부 및 대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햄스트링 부상) 환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 3명 중 1명이 10~20대의 젊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진료 인원은 2009년 약 2만 명에서 2013년 약 4만 명으로 5년간 2만 명(66.8%) 정도가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3.7%였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67.4%~68.2%, 여성이 31.8%~32.6%로 남성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을 보면 10대와 20대 남성 진료 인원이 전체 진료 인원의 27.8%를 차지했다. 또 10~30대 구간들은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약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햄스트링 부상은 허벅지 뒤쪽 근육의 손상으로 축구와 같이 갑작스러운 달리기나 방향 전환을 요하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발생한다. /기자

'몸매 만들기' 무리하면 뼈 건강에 독

절식 피하고 칼슘 섭취로 골다공증 예방해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에서 멋진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 '몸매 만들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운동 및 무리한 식단 조절은 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절식 대신 뼈 건강 유지해야

사람들이 몸매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식단 조절이다. 필요 이상의 음식물과 칼로리를 제한해 운동 효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단식과 절식 등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야 한다. 칼슘 섭취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골다공증을 결정짓는 골밀도는 뼈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20~30대 최대로 높아졌다가 자연 감소한다. 따라서 젊을 때 골밀도를 최대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골다공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갱년기 이후 흔하게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여성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와 함께 몸매 만들기의 핵심인 헬스를 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단시간에 격하게 운동하다 보면 자칫 어깨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와 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러닝머신을 휴식 없이 오랜 시간 하거나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십자인대 파열이나 연골판 손상은 물론 심하면 조기 퇴행성관절염까지 부를 수 있다.

또 헬스 시 상체 운동은 대부분 어깨를 사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이때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동작은 어깨 손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질환으로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등이며 부상을 당하게 되면 통증과 함께 움직임에 제한이 생겨 운동을 아예 할 수 없다.

김태윤 웰튼병원 소장은 "외모와 몸매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못해 지나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절은 나이가 들면서 퇴화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자

/티피크로스 제공

SNS에서도 편의점 경쟁

상품 CU, 서비스 세븐일레븐, 마케팅은 GS25

편의점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NS상에서 상품은 CU, 서비스는 세븐일레븐, 마케팅은 GS25가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타파크로스'는 최근 2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발생한 177만9194건의 유효 데이터를 분석해 편의점 3대 업계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에 대한 상품·서비스·마케팅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랜드별 언급 비중은 CU가 49%로 가장 높았으며 세븐일레븐과 GS25는 각각 30%, 21%를 차지했다.

이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언급 비중은 카테고리별로 보면 주요 상품군은 음료와 기정간편식, 스낵류였다. 음료(28%)가 SNS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정간편식이 24%, 스낵류가 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상품들을 대상으로 편의점 브랜드별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CU가 만족도 지수가 43.5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도시락, 삼각김밥 등 전반적인 식사 메뉴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콘소메 팝콘을 비롯해 다양한 PB상품의 인기도 압도적이었다.

친절태도와 위생, 진열 등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는 세븐일레븐이 만족도 지수 32.9를 나타내며 근소한 차이로 1위에 올랐다. 위생 상태는 3사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편의점이 습관적 구매가 많은 유통 채널인 만큼 소비자들은 인기상품의 진열 상태에 반응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할인과 적립, 증정 등의 마케팅 만족도 평가에서는 GS25가 1위(33.7)였다. GS25는 '나만의 냉장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별화된 증정 전략을 펼쳤다. 1+1 행사 제품 구매 시 여분 음료를 앱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어느 매장에서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다.

◆"편의점 생태계 변화 필요"

이처럼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 만족도에서 3사가 번갈아 1위를 차지했다. 이들 모두를 포함한 전체 만족도 평가에서는 CU가 가장 높은 만족도 지수(40.5)를 보였다. CU는 가정간편식, 음료·PB스낵 등 상품군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부문에서도 고른 점수를 받았다. 또한 월드컵 광복절·국군의 날 등 이슈를 반영하는 각종 이벤트들 시민에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편의점의 점포 수는 2만5000여개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은 국내 총 편의점 점포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를 추격 중인 브랜드들이 많다. 최근 신세계 그룹도 위드미 조인수한 위드미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편의점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중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지혜 타파크로스 전임연구원은 "편의점주의 자살,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 프랜차이즈로부터 착취당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문제 등 편의점과 얽힌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상에 갑의 횡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사회적 노력을 통한 편의점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재은 기자 [illegible]

인기 있는 SPA 브랜드는?

유니클로 1위… 실용성 높고 가격도 저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SPA브랜드 가운데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의 매장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리서치 케이서베이(KSURVEY)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7명(남성 394명, 여성 606명)으로 가장 선호하는 SPA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12명(41.12%)가 유니클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H&M이 93명(9.28%)으로 2위에 자라와 스파오가 각 83명(8.28%)으로 동률 3위에 올랐다.

이 밖에 갭을 가장 선호하는 사는 75명(7.49%), 에잇세컨즈는 72명(7.19%), 포에버21은 45명(4.49%), 탑텐은 43명(4.29%), 미쏘가 37명(3.69%), 기타 매장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9명(5.89%)이었다. 특이한 점은 유니클로 선호자 중 남성이 48.48%로 여성 36.30%보다 높다.

선호 이유는 실용성과 퀄리티가 높아서라는 응답자가 178명(43.20%)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이 저렴해서 라고 응답한 사람은 139명(33.74%), 취향이 자신과 맞아서가 41명(9.95%)으로 2~3위를 차지했다. 유명 연예인이 광고해서 라고 응답한 사람은 20명(4.85%)에 불과했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카카오 플러스〉

카플 친구 특혜+무료 투숙 행운을…

쉐라톤 인천 호텔, 개관 5주년 기념 이벤트

쉐라톤 인천 호텔(www.sheratonincheon.com)이 개관 5주년을 맞아 SNS를 통한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쉐라톤 인천 호텔 카카오 플러스를 오는 17일 오픈한다.

플러스 친구가 되면 호텔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할 수 있다. 또 호텔은 오픈 당일인 17일에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소식받기"와 함께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고 글을 남기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텔은 개관 5주년 맞이 이벤트로 여름 패키지 중 하나를 사전 예약하고 7월과 8월에 투숙하는 고객 중 체크인 시 추첨을 통해 하루 1명에게 5달러에 투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게다가 개관 5주년 당일인 8월 1일에는 추첨을 통한 무료 투숙의 행운도 주어진다.

쉐라톤 인천호텔 관계자는 "5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카카오 플러스 친구만의 특혜와 여름 패키지를 단돈 5달러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호텔은 ▲여름이야기 패키지 ▲썸머 온 더 플러 패키지 ▲썸머 바비큐 패키지 ▲썸머 이스케이프 패키지 등 다양한 여름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문의 032)835-1004

/황재용기자 [illegible]

SCREEN
FINAL 시즌 | 하드코어 섹시 뱀파이어 시리즈
트루블러드7
7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
SCREEN NEW SERIES
NEW 시즌 | HBO 미스터리 스릴러
레프트오버

'냉장고 이불'로 여름 밤을 시원하게…

몸에 달라붙지 않고 흡습성 탁월 인견·라미 등 천연복재 소재 인기

열대야로 잠 못드는 밤, '숙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선풍기도 에어컨도 아니다. 소프라움의 김인보 이사는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땀을 빠르게 흡수·배출하고 촉감이 시원한 이불을 덮어야 잠을 설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여름 이불 소재로는 '인견'이 있다. 천연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인견 소재로 만든 이불은 나무의 찬 성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냉장고 이불'이라 불릴 정도로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인견 소재로 만든 소프라움 '에코 홑이불'은 통기성과 흡수성이 뛰어나고 몸에 달라 붙지 않아 땀띠나 피부습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제격이다. 오렌지·그라센 등 화사한 색상에 은은한 플라워 패턴으로 쾌적한 여름 침실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좋다.

전통 모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보완한 '라미' 소재도 최근 침구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모시는 본래 통풍·흡수성은 뛰어나지만 거친 촉감으로 피부가 약한 어린아이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외면 받아왔다. 그러나 재질을 보다 부드럽고 시원하게 업그레이드 한 라미 이불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브자리의 '세르빌'은 기계로 섬세하게 제직해 매끄럽고 자일리톨 성분이 함유된 에코퓌베 가공으로 청량감이 뛰어나다. 파란색 물결 무늬는 요동치는 바다를 연상케 해 보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다.

열대야에 대비해 아이파크백화점은 '알다이 숙면 상품전'을 열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몸에 휘감기는 부드러운 소재보다 까슬까슬한 '면리플' 원단이 적합하다. 일명 '지지미'로 불리는 면리플은 순면 소재에 울록볼록한 엠보싱 효과를 적용해 살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 했다.

박홍근홈패션의 '로렌느'는 순면 소재에 주름과 조밀·굴곡 등을 넣어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다. 더불어 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 조절 기능때문에 덮었을 때 갑갑하지 않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장마철 습기 '속'부터 잡아라

데오도란트 속옷 등 땀 흡수 탁월한 아이템 인기

장마철에는 온도와 더불어 습도까지 높아 땀이 나면 쉽게 마르지 않는다. 습한 날씨에 눅눅한 속옷을 입고 있으면 불쾌지수는 더욱 치솟기 마련.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속'부터 다스려야 한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말리는 기능성 속옷만 잘 챙겨 입어도 체감온도는 뚝 떨어진다.

◆통풍 잘되는 브래지어 인기

이즈음 여성들의 골칫거리는 브래지어다. 여성의 가슴골은 땀이 차기 쉬워 아무리 보송보송한 브래지어를 착용해도 땀이 스며들어 금새 축축해진다. 특히 가슴과 바로 밀착되는 브래지어의 컵 안쪽은 습기가 더 잘 차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는 기능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속옷업체들은 장마철을 겨냥해 흡습속건 기능의 여름용 브래지어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 컵에 쓰이는 스폰지 소재 대신 통기성이 뛰어난 몰드컵을 적용하고 날개 부분에 시원한 메쉬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비비안의 '에어홀릭 브래지어'는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200여 개의 에어홀(공기 구멍)이 있는 몰드컵을 사용해 착용감이 시원하다.

면에 비해 흡습성이 좋은 쿨론 소재로 된 브래지어도 나와 있다. 땀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해 몸에 덜 달라붙어 장시간 차고 있어도 쾌적하다.

◆땀 냄새 잡는 데오도란트 속옷

습기와 땀은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 쉽다. 더욱이 팬티의 경우 분비물로 악취가 날 수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요즘 남성들 사이에서는 냄새를 없애주고 땀을 억제하는 데오도란트 성분이 사용된 속옷이 인기다.

남성 속옷브랜드 젠토프는 항균항취 기능의 데오도란트 테이프를 사용한 남성 드로즈를 선보이고 있다. 기능성 원단이 땀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켜 냄새가 나지 않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발 속 습기는 '덧신'으로 잡자

장마철에 발은 늘 젖어있기 마련이다. 항상 습기가 차 있는 발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이 세균은 발 냄새의 주범이 된다. 게다가 장마철에 여성들은 목이 긴 레인부츠를 자주 신는데, 이 레인부츠는 주재질이 고무인데다가 통풍이 잘 안돼 발에 습기가 차기 쉽다.

쾌적한 발을 위해서는 덧신을 신는 것이 좋다. 여름철 덧신은 시원한 촉감과 통풍을 위해 메쉬·레이스 등의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지만 장마철에는 땀 흡수 능력이 탁월한 면 소재 덧신이 적당하다.

비비안 레그웨어팀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레인부츠가 여성들에게 장마철 필수 패션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해 안에 신는 덧신을 찾는 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기자

동아오츠카, '하이파이브' 체험단 모집

18일까지… 해외여행·백화점상품권 등 경품 푸짐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가 휴가철을 앞두고 식이섬유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화이브미니 체험단 5기-하이파이브'를 모집한다.

총 300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체험단에게는 8월 한 달간 화이브미니를 체험할 수 있는 제품 지원과 3가지 미션이 주어진다.

회사는 미션마다 선정되는 우수 체험단에게 백화점상품권과 에버랜드이용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해외여행 상품이 제공된다.

오는 18일까지 화이브미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이브미니 체험을 통한 자신의 목표를 작성하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농협홍삼 한삼인, '수능 대박 기원' 할인

농협홍삼 '한삼인'이 수능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푼다.

농협홍삼 한삼인(대표 안종일)은 오는 30일까지 한삼인 제품을 17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14만원 상당의 럭키백을 선착순 증정하는 '수능 대박 기원 할인 행사'를 연다.

7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대한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된 홍삼성분 썬블럭을 증정한다.

행사기간 동안 농협홍삼은 수험생들의 충분한 건강유지를 위해 홍삼에이플러스 30포를 2세트 구입하면 1세트를(2+1) 낱개로 60포를 구매하면 30포를 추가로 증정하고 총 39만원 상당의 청소년용 홍삼에이플러스 총 90포를 21만원에 할인 판매한다.

한삼인 '홍삼에이플러스'는 저온추출 방식으로 추출한 6년근 홍삼 농축액과 천궁, 숙지황, 당귀 등 국산 생약재에 비타민 C, 수용성 오메가3, 엽산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원료를 배합해 만든 제품이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영화 '좋은 친구들' **이광수**

술로 친해진 지성-주지훈과 완벽 호흡

가족 같은 '런닝맨'

“배신? 희생의 아이콘이에요”

이광수(29)는 반전 매력을 지닌 배우다.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속 한주거리는 배신의 아이콘을 떠올렸다면 그의 반쪽만 본 셈이다. "친구들 사이에선 의견을 내세우는 편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천천히 또 진중하게 인터뷰를 했다. 개성 있는 얼굴에 대해서도 "나도 내가 좋다. 부끄럽다"고 말한다. 지난 10일 개봉한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마음 여린 민수 역을 맡았다. 현태(지성), 인철(주지훈)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인물이다. 이도윤 감독이 이광수의 진짜 성격을 인물에 반영했다고 할 정도다.

◆ "세 남자 우정? 제 희생 덕이죠"

영화는 세 친구 현태, 인철, 민수가 불법 도박장 화재사건으로 서로를 의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광수는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소심하고 여린 역할을 맡았다. 그는 시나리오에 자신감을 보였다.

"시나리오와 현장 촬영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글이 탄탄했어요. 시나리오만 봐도 민수와 두 친구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제가 대본을 보고 느꼈던 민수를 관객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시사회 후 평이 좋았지만 관객 반

응은 개봉해야 알 거 같아요. 오래된 친구들의 이야기니까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작품은 배우들의 생활 연기로 쏠쏠한 재미를 준다.

"노력한다고 리얼해지는 건 아니죠. 감독도 준비는 철저히 하되 현장에선 편하게 하라고 조언해 줬어요. 치고 받는 장면도 큰 동선만 정해놓고 했죠."

지성과 주지훈. 이광수는 서슴없이 장난치는 사이가 됐다.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어요. 주지훈이 친구 역할이니까 말은 편하게 하라고 했고 지성의 경우 '런닝맨'에 두 번 출연했죠. 그래도 배우로 만나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정말 편하게 대해줬어요. 주지훈이 분위기 낼 때 저를 많이 이용했죠. (웃음) 제 희생이 없었으면 좋은 분위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 "예능 이미지 신경 안 써요"

이광수는 데뷔 6년 차다. '런닝맨' 초창기 멤버로 4년 째 활약 중이다. 연기 인생의 반 이상을 예능과 함께 한 그는 '기린', '배신의 아이콘'으로 연령을 아우르며 사랑 받고 있다.

"'런닝맨'은 가족이죠. 이번에도 영화 촬영 중인데 전화가 와서 받으면 '촬영중인데 어떻게 받아? 분량 별로 없구나?'라고 계속 놀렸죠. 멤버들이 많이 편해져 예능감이 있어 보이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는 "섭외가 들어왔다"며 "작가와 처음 만나 즐겁게 이야기 했는데 그게 면접이었다"고 캐스팅 당시 상황을 추억했다.

악역했던 지석진이 얼마 전 파지왕에 등극하며 활약하고 있는 데 대해 "우승은 해도 찜찜하다"며 "나의 경우 우승 시켜달라고 해도 시켜주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이광수는 MBC 드라마 '동이'(2010)에서 살가운 영달 역으로 출연했다. 지난해 MBC '불의 여신 정이'에선 곰봉어 거친 엄대를 연기했다. 배우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오는 23일 첫 방송되는 SBS '괜찮아 사랑이야'에선 조인성, 공효진과 호흡을 맞춘다. 투렛 증후군을 지닌 긍정적인 성격의 박수광을 연기할 예정이다.

"심담치료센터에 가거나 의사를 직접 만나면서 캐릭터를 연구하고 있어요. 실제 있는 증후군이다 보니 연기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만큼 준비를 잘 해야 진정성이 묻어나죠. 작품을 고를 때는 예능 속 고정된 이미지를 의식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떤 역할이라도 제가 몰입하면 관객도 잘 봐주겠죠. 시나리오를 보고 좋은 작품을 고민하는 자세는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작업이에요."

/전효진 기자 jeonhj@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 디자인/최숙이

걸스데이 첫 단독 콘서트 '열광의 도가니'

'섹시 발랄' 대세 걸그룹 매력 과시
신곡 '달링' 첫 무대 팬들에게 공개

데뷔 4주년을 맞은 걸그룹 걸스데이가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올해 지난 1월 3일 발표한 '썸씽'으로 명실상부 대세에 오른 걸스데이는 13일 광진구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서머 파티'를 열고 2시간여 동안 2000여 명의 팬과 함께했다.

이날 콘서트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콘서트를 꿈꾸지 못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뤄진 것 같아서 좋고 설렌다"며 "걱정도 되지만 오늘 하루는 즐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유라는 "이제 콘서트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혜리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다"며 "부담도 많이 됐지만 오늘 하루 즐기면서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고, 콘서트장을 찾으시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걸스데이는 이날 콘서트 이후 14일 서머 스페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선다. 타이틀곡은 '달링'이다.

소진은 새 앨범에 대해 "무더운 여름날 해변에 누워 한 모금 마시는 청량음료처럼 시원한 곡"이라며 "기존의 섹시한 이미지도 있지만 여러 콘셉트를 다양하게 소화하는 가수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상큼한 곡으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걸스데이는 '별빛달빛'으로 주목받았던 '기대해'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독특한 실버빛의 의상을 입고 그녀들 '민지야'를 열창했다. 이들은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안무로 공연장을 찾은 팬들을 매료시켰다. 또 신곡 '달링'의 뮤직비디오와 첫 무대를 공개했다.

이어 '기우뚱'과 '나에게 반짝' '한번만 안아줘' '너 한는 지까' '오 마이 갓' '나를 잊지마요' '여자대통령'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한층 더 돋궜다. 특히 이날 멤버들은 각양각색 매력을 담아 솔로 무대를 꾸몄고, 원더걸스 '노바디' 카라 '미스터' 소녀시대 '지'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의 메들리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편 걸스데이는 공연수익금 전액을 월드비전코리아에 기부, 출생등록이 없어 정식 학교는 물론 그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본적이 없는 태국 치앙라이 소녀들을 지원한다.

/김민은기자 yzw@metroseoul.co.kr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걸그룹 걸스데이가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GIRL'S DAY SUMMER PARTY EVERYDAY 3' 썸머 스페셜 미니앨범 발표와 첫 단독 콘서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진영기자 son@

그룹 비스트 '굿 럭' 가요계 돌풍

국민 아이돌 자리잡나

그룹 비스트(사진)가 신곡 '굿 럭'으로 음원 시장을 넘어 음악방송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스트는 지난달 21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미니 6집의 쌍 선공개 발라드곡 '이젠 아니야'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예고했다. 이어 '굿 럭'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3주 연속 1위, 총 4주간 1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KBS2 '뮤직뱅크'에서 3주 연속, SBS '인기가요', 케이블채널 엠넷 '엠카운트다운', MBC뮤직 '쇼챔피언' 등에서 1위를 휩쓸어 총 10개의 1위 트로피를 차지했다.

올해로 데뷔 5년차를 맞은 비스트가 국민 아이돌로 거듭났음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기는 비스트 멤버들이 흘린 땀의 결과물이다. 비스트는 퍼포먼스 중심의 다른 아이돌 그룹들과 달리 유독 발라드에 강한 그룹이다. 하지만 이번 컴백을 앞두고 가창력은 물론 퍼포먼스와 비주얼 등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비스트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에 데뷔 이후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쉴 틈 없는 안무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준비했다"며 "해외 안무가와 처음으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컴백 전부터 초심을 강조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스트가 국민 아이돌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은기자 yzw@

'국민그룹' god 12년 만에 지킨 하늘색 약속

12년만의 완전체로 돌아온 국민그룹 god가 잠실을 뜨겁게 달궜다. '다시 만나자' 던 하늘색 약속이 드디어 지켜진 것이다.

지난 12일 잠실 주 경기장내 보조경기장은 god 팬들로 온통 하늘색 물결로 물들었다. god의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팬들과 하나가 돼 눈물과 웃음이 함께 했던 감동 그 자체였다. god는 12·1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god 15주년 애니버서리 리유니온 콘서트'를 열고 3만명의 팬과 함께 호흡했다. 팬들은 god를 상징하는 하늘색 우비와 스카프를 입고 콘서트장 앞에 모여들었다. 30도가 넘는 더운 여름날 비도 내리지 않는데 하늘색 우비를 입고 쉴 없이 풍선을 흔들던 팬들은 눈물이 섞인 함성으로 그들의 복귀를 환영했다.

지난 '15년'의 시간을 주제로 하는 오프닝 영상이 히트곡들과 폭죽쇼를 배경으로 무대 전면의 LED에 펼쳐졌다. god의 과거 활동 자료와 관계된 언론 기사, 인터넷 댓글이 거대한 시계 이미지와 함께 흐르는 영상은 그룹이 과거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했다.

그리고 윤계상의 내레이션과 함께 등장한 god는 8집 선 공개곡인 '미운오리 새끼'를 시작으로 '길' '0%' '하늘색 약속' 등을 잇달아 선보였다. 오랜 시간 서로 기다려온 시간이었던 만큼 god는 열정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고 팬들은 목청이 터질 듯한 '떼창'을 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팬들은 첫 인사를 앞둔 god를 향해 '안녕, 참 오랜만이지'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머리 위로 펼쳐 흔들었고 이를 바라 본 god는 "기다려줘서 고맙다" "오랜만이다" "사랑해" 등의 말로 화답했다.

god는 "우리가 불금의 원조였다"며 댄스넘버 '프라이데이나잇' '관찰' '애수' 등을 들려주며 공연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하나된 무대 선보이는 god /오종찬^

이날 공연의 백미는 국민 그룹 god의 과거 대표곡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를 비롯해 '다시' '어머님께' '거짓말', '니가 있어야 할 곳' '하늘색 풍선' 등을 관객들과 함께 차르던 순간들이었다.

마지막곡 '보통날' 무대를 앞두고 멤버 윤계상의 편지가 그룹의 과거 영상과 함께 공개돼 팬들 눈을 젖게 했다. 그는 다른 멤버와 팬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이제는 가슴에서만큼은 헤어지지 말자. 그냥 같이 살아가자"라고 고백했다.

god는 2시간30분동안 앵콜곡까지 20여곡을 부르며 따스한 추억을 팬에게 선물했다. /정선은기자

리메이크 드라마 열풍 속 '명과 암'

'운명처럼 널 사랑해' 한국정서 맞춰 수정
'노다메 칸타빌레' 캐스팅 단계부터 논란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

KBS2 '칸타빌레 로망스'에 캐스팅 된 주원(왼쪽), 윤아(오른쪽)

몇 해 전부터 불어닥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열풍이 식을줄 모르고 있다. 원작의 흥행 요소를 등에 업은 리메이크 드라마가 창작 드라마에 비해 쉽게 성공하자 방송사들이 앞 다퉈 리메이크 작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리메이크 드라마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원작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고충을 겪기도 한다.

◆청출어람 – 운명처럼 널 사랑해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이하 '운널사')는 2008년 대만의 인기 드라마 '방종주정아애니'를 원작으로 했다. 2002년 SBS '명랑소녀 성공기'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던 장혁과 장나라가 12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운널사'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운널사'는 평범한 여자 김미영(장나라)이 우연히 당첨된 마카오 호화 리조트 여행에서 만난 재벌가 문의 9대 독자 이건(장혁)과의 하룻밤으로 임신하게 된 후에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운널사'는 원작의 큰 틀은 비슷하게 따라가되 세부적인 연출은 한국 정서에 맞게 바꿔 재미를 더했다. 특히 김미영과 이건의 하룻밤을 보낸 일명 '떡방아 신'은 미사일·기자 등 각종 사물에 빗대어 그린 원작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작게는 한 개의 장면부터 크게는 캐릭터 기본 설정까지 한국 정서에 맞게 바꾸는 경우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대만 드라마 '패견여왕'(2009)을 리메이크한 tvN '마녀의 연애'는 여주인공의 직업과 사연 등 큰 설정은 유지했지만 극중 나이는 다르게 그렸다. 대만판과 한국판 모두 여주인공은 약혼자의 갑작스런 파혼으로 사랑과 결혼을 믿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는 여기자로 그렸다. 하지만 원작의 서른셋이라는 여주인공의 나이가 국내서 '골드미스'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마흔을 코앞에 둔 나이로 변경됐다.

수정대신 복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방영한 MBC '여왕의 교실', SBS '수상한 가정부' 등의 작품은 줄거리부터 주요 사건, 캐릭터 대사까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대사만 한국말인 드라마'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흥행 보증 수표처럼 여겨지는 리메이크 드라마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원작의 인기와 국내 정서 사이에서 균형잡기가 필요하다.

◆형만한 아우 없다? – 노다메 칸타빌레

지난 2006년 인기리에 방영된 일본 드라마(이하 '일드') '노다메 칸타빌레'(2006)의 한국판 제작 소식이 들려오자 드라마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노다메 칸타빌레'는 현지는 물론 국내서도 큰 인기를 모은 작품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흉내냈다간 보이라 시청자들의 외면과 비판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녀주인공 치아키와 노다메를 누가 연기할 것인지를 두고선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일드 '노다메 칸타빌레'는 일본의 청춘스타 우에노 주리와 타마키 히로시를 각각 주인공 노다메와 치아키에 캐스팅했다. 두 배우 모두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모와 뛰어난 코믹 연기로 이 드라마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만큼 '노다메 칸타빌레'의 두 주인공의 캐스팅은 드라마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앞서 배우 주원이 치아키 역에 출연을 확정지은데 이어 걸그룹 소녀시대 윤아가 노다메 역에 유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드라마 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원작에서 노다메는 청결과는 거리가 멀고 식탐만 넘치는 4차원 여대생이지만 음악에 있어선 누구보다 뛰어난 천재성을 발휘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다. 치아키 역시 음악 천재로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까칠한 성격을 지녀 주변 사람들과 날을 세우고 사는 인물이다. 원작 팬은 윤아와 주원이 두 캐릭터를 잘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캐스팅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한국판 '노다메 칸타빌레'가 을 가을 원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민기자 [email]@metroseoul.co.kr

엑소 대만 콘서트

그룹 엑소 대만서도 대세돌 입증

단독콘서트 2만여 관객 몰려 열광

그룹 엑소가 대만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대세' 아이돌임을 재 입증했다.

엑소가 11, 12일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펼친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 #1 – 더 로스트 플래닛-인 타이베이'에는 2만명의 팬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엑소의 대만 단독 공연은 처음이며 2회가 모두 매진됐다. 엑소의 공연을 취재하기 위해 TVBS, 중국시보, 대만연합보, 자유시보, 빈과일보 등 현지 매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엑소는 데뷔곡 '마마'를 비롯해 '늑대와 미녀' '으르렁' '중독' 등 히트곡은 물론 앨범 수록곡 무대와 멤버들의 솔로 무대 등으로 31곡을 2시간 동안 쏟아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관객들은 공연 내내 엑소를 연호하고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는 등 열정적으로 콘서트를 즐겼다"며 "특히 팬들은 11일 '♥WE ARE ONE', 12일은 '우리사랑같이아날거이♥'라는 문구의 대규모 카드 섹션을 펼치는 등 엑소를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첫 단독 콘서트 투어로 각국 팬들을 만나고 있는 엑소는 대만에 이어 18,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을 한다.

/정하은기자 yun@

'입건유예 논란' 박봄 SBS '룸메이트' 하차

걸그룹 2NE1의 박봄(사진)이 SBS '룸메이트'에서 잠정적으로 하차할 전망이다.

13일 복수의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박봄은 지난 11일 '룸메이트' 녹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룸메이트' 입주 100일 기념으로 마련된 일본 대만 여행에도 함께 하지 않았다.

현재 박봄은 2NE1의 월드투어 일정에 따라 일본에 머물고 있으나 12일 일본으로 출국한 '룸메이트' 출연진과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봄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방송 출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하차를 암시한 바 있다.

박봄은 지난 2010년 마약류로 분류된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국제 특송 우편으로 유입했다 적발됐지만 입건유예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에서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정지은기자

2PM 준호 타워레코드 월드 차트 정상 등극

2PM 준호와 GOT7(갓세븐)이 일본 타워레코드 월드 차트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1일 발표된 타워레코드 월드차트(7/10자)에 따르면 준호의 두 번째 솔로 '필'은 랭킹 1~4위를 차지했다.

준호의 두 번째 일본 솔로 앨범 '필'은 준호가 전곡 작사·작곡 및 프로듀싱을 한 앨범이다. 7월 9일 발매와 동시에 타워레코드, 오리콘 데일리 차트, HMV 음반샵 아시아 음악 부문 등 3곳에서 1위에 올라 그 저력을 입증했다.

2PM 준호 '필' 앨범

준호와 더불어 갓세븐의 앨범 '갓 러브'는 랭킹 5위를 차지했다. 갓세븐은 올해 4월 일본 쇼케이스를 진행한 것 외에 아직 일본에서는 정식 데뷔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에서 성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워레코드는 일본 최대의 레코드 샵으로 준호와 갓세븐이 톱5에 등극한 월드 차트는 세계 각국의 음반 사이에서의 선전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정하은기자

신의 한 수

한국 영화 '신의 한 수' 돌풍

'트랜스포머' 제압 '혹성탈출2'와 본격 경쟁

영화 '신의 한 수'가 2014년 개봉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중 처음으로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도 완전히 제압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신의 한 수'는 개봉 10일째인 12일 16시 기준 누적관객수 200만7199명을 기록했다. 2014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단 기간 내 100만 관객을 돌파한 '신의 한 수'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로는 처음으로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특히 각각 개봉 10일, 11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신세계', '아저씨'보다 다소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어 최종 관객 스코어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의 한 수'는 범죄로 변해버린 내기바둑판에 사활을 건 꾼들의 전쟁을 그린 액션영화다. 정우성은 복수에 목숨을 건 전직 프로바둑기사 태석 역을, 안성기는 맹인 바둑의 고수 주님 역을 맡았다. 이범수는 태석이 복수의 대상으로 삼은 절대악 살수로 분했다. 정우성, 이범수, 안성기 외에도 김인권, 이시영, 안길강, 최진혁 등이 출연해 흥행 도를 높였다.

변칙개봉 논란을 빚었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혹성탈출2)의 초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혹성탈출2'는 12일 하루 동안 910개(상영횟수 4596회) 상영관에서 53만7828명(누적 99만7260명)을 동원했다. 특히 많은 상영관수에도 61.0% 좌석 점유율을 기록, '혹성탈출2'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3주차 주말을 보내고 있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는 607개(2268회) 상영관에서 20만3706명(누적 471만 9624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2주차 토요일 4797회였던 상영횟수는 딱 1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1~3편이 기록했던 700만 이상 흥행은 힘들지만, 500만 관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셈이다.

개봉 직후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흥행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신의 한 수'가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성은기자 yse@metroseoul.co.kr

디바 신효범 신곡 발표

따뜻하고 편안한 음성 돋보이는 '힐링곡'

가수 신효범(사진)이 신곡 '시간이 됐다면'으로 컴백한다.

신효범의 따뜻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신곡 '시간이 됐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는 가사를 담았다. 뉴욕대 출신의 재즈 뮤지션 지나그림이 작곡을 맡았으며 싸이의 드러머로 유명한 암체공, 옹스트롬 등이 세션에 참가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신효범이 이 노래를 받았을 때 딱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 들어 더욱 공을 들였다"고 했다"며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녹음했지만 전보다 두 배의 시간이 들었다. 공들인 만큼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곡이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효범의 새 싱글 '시간이 됐다면'은 14일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김가인기자

중국, 너희들도 포위됐다

'너포위' 중국 내 동영상 사이트 클릭 1위

이승기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의 중국내 인기가 심상치 않다.

'너포위'는 지난 12일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QQ 비디오'에서 최단 시간 누적조회수 3억3000건(오전 9시 집계 기준)을 돌파하며 그동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던 SBS '상속자들'을 앞질렀다.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가 누적 조회 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에선 느운 일로 종영까지 2회를 앞둔 '너포위'의 조회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기의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중국 팬들은 보통 시각적으로 화려한 요소가 많고 패셔너블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너포위'에는 그런 설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SBS 수목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너포위'가 큰 인기를 끌 수 있던 이유는 중국내 이승기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너포위'의 지난 10일 방송분 시청률은 12.9%(닐슨코리아 집계, 전국 평균)를 기록하며 9주 연속 수목드라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지민기자

진짜 '나쁜 녀석들'이 등장한다

올 가을 방송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 김상중 마동석 조동혁 박해진 캐스팅 확정

김상중 마동석 조동혁 박해진

케이블 채널 OCN의 새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 배우 김상중·마동석·조동혁·박해진이 캐스팅됐다.

'나쁜 녀석들'은 나쁜놈들을 소탕하기 위해 강력계 형사가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더 나쁜 녀석들과 함께 힘을 모아 수사를 펼치는 내용이다.

김상중은 범죄자보다 더 악랄하고 무자비한 강력계 형사 오구탁 역을 맡았다. 오구탁은 과잉 수사·진압은 기본이며 한 번 물면 지위고하 따지지 않고 절대 놓지 않아 '미친개'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다. 드라마는 오구탁이 정직 중에 경찰 총장의 요청으로 나쁜 녀석들보다 더 나쁜 조직폭력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청부살인업자 등을 소환하며 시작된다.

조직폭력배 박웅철은 마동석이 연기한다. 박웅철은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성격이지만, 의리만큼은 뛰어난 캐릭터로 서울 전체를 접수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출신다운 날렌 주먹을 자랑한다.

조동혁은 청부살인업자 정태수 역을 맡았다. 극중 정태수는 빼어난 외모에 빠른 상황 판단력, 재빠른 몸놀림과 화려한 손기술을 갖춘 청부업자로 된 지역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인물이다.

박해진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이정문을 맡아 연기변신을 꾀할 예정이다.

박호식 CJ E&M 책임프로듀서는 "선한 형사와 악한 범죄자로 캐릭터가 구분됐던 기존의 수사물과는 달리 '나쁜 녀석들'에는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을 추구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모순된 보습들을 드라마의 캐릭터에 그대로 녹여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쁜 녀석들'은 오는 7월 중순 촬영을 시작해 오는 10월 4일 오후 11시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kandi@

개그맨 박명수 '명수네 떡볶이' 공개

김예림 피처링 참여

개그맨 박명수(사진)가 신곡 '명수네 떡볶이'로 돌아온다.

박명수는 가수 김예림과 듀엣곡 '명수네 떡볶이'를 오는 16일 공개한다. '명수네 떡볶이'는 박명수가 직접 작곡과 프로듀싱을 한 곡으로 신나는 느낌의 일렉트로닉 댄스 장르다. 빠른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유쾌한 가사가 특징이다.

과거 소녀시대 제시카와 함께 한 '냉면'은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을 잇는 쑤느솜의 인기를 넘어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예림의 소속사 미스틱89 관계자는 "최근 김예림이 박명수의 러브콜을 받고 피처링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예림은 엠넷 '슈퍼스타K'에서 도대윤과 함께 투개월에서 신비로운 음색과 음악성으로 또래 여가수 중 가장 독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성은기자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수면 식욕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신체대학교 서울백병원 (www.nsk.ac.kr)

로칠드, 와인의 품격을 높이다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샤토 마고가 프랑스인의 자존심 이라면 마고와 같이 메독 1등급에 속하는 로칠드 가문의 2개 샤토는 고품격 와인의 대명사다. 바로 샤토 무통 로칠드와 샤토 라피트 로칠드다.

로칠드(Rothschild)는 프랑스어 발음이며 영어로는 로스차일드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계로서 세계 금융시장의 거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가문이 와인 세계에서도 로칠드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것. 특히 한 집안이면서도 최고를 지키기 위한 양보없는 전쟁을 치러 왔다.

로칠드 가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전상으로 출발해 금융자본으로 발전했고 영국에서 대성공을 거둔다. 그 후 3대손인 나다니엘이 프랑스로 이주, 귀족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산 와이너리가 메독지역 뽀이약 마을의 명가 샤토 무통 로칠드다.

비록 1855년의 메독 와인등급에서 2등급에 머물렀지만 그 뒤 더욱 분발해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결국 최고의 반열에 올랐으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나다니엘의 행보를 주시하던 삼촌 제임스는 15년 뒤인 1868년 샤토 라피트를 사들이고 이름을 샤토 라피트 로칠드로 바꾼다. 이는 순전히 나다니엘의 아버지 네이선과 제임스의 형제간 경쟁심 때문이었다.

샤토 라피트 로칠드는 1등급으로 승격하려는 무통 로칠드의 노력을 번번이 무산시키며 갈등을 이어왔다. 마침내 1973년 라피트의 용인에 의해 샤토 무통 로칠드는 숙원이었던 1등급에 진입하게 된다.

그 기간 샤토 무통 로칠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대표적인 것이 병에 붙인 라벨의 그림이다. 매년 유명화가로 하여금 라벨의 그림을 맡기는 전통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다. 이들 중에는 피카소, 샤갈, 칸딘스키 등 미술사에 삶이 빛나는 화가들이 즐비하다. 샤토 라피트 역시 프랑스 혁명 발발 전부터 '왕의 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명성 높은 와인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톱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품격의 대명사는 천혜의 환경에 로칠드 가문의 노력이 더해서 만들어진 결실이라 하겠다.

/mcho@metroseoul.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4	3				
3	2		9					
	9				8	5		
			6			3		
	4	1		8		2	7	
		9			2			
		2	7				3	
					4		8	6
				1	5	4	9	

			4		8			
		7		3	9	6	4	8
3								7
4			8			2		9
				5				
9		3			2			6
1								5
8	3	4	5	1		7		
			2		7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 제공 - 보누스
"면사 스도쿠 라이티드" (아이를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44세 여자 늦게라도 결혼 가능한지
재혼남 아니면 49세이후 맺어져요

Q 행복한 캔디 여자 71년 3월13일 음력 아침 8시 55분

올해 나이로 딱 44세인데 아직 미혼이고 교제중이거나 결혼할 자신이 없네요. 남들 같으면 학부형이 되고도 남을 나이에 싱글이다 보니 어른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주위에서도 안쓰럽다 못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독립해서 혼자 생활하는 것도 자유롭고 나쁘지 않지만 더 나이 들었을 때 옆에서 의지가 될 수 남편이나 자식도 없이 외롭게 혼자 늙어갈 생각을 하면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늦게라도 결혼이란 걸 하게 될지 아님 평생 독수공방 혼자 늙을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 선인들이 말하길 복(福)이 나는 원인은 보통은 음식과 취침에 있다고 했습니다. 운이 흐리고 답답하는 시발점이 잠자는 위치에 달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실제 우리 생활에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면 시에 머리를 서북방향으로 둘 수 있다면 방향을 염두에 둬보세요. 잠자는 방향을 올길 수가 없다면 커튼의 색상을 자수(子水)의 흑색(黑色)으로 해보는 것도 이성을 만나는 주변기운에 도움이 됩니다. 돼지띠에게 도화의 색상으로 검정색을 귀울 수 있으며 도화는 이성으로 행복한 운수를 부르는 비결이 됩니다.

대어난 계수(癸水)생일간의 사주는 배우자가 무토(戊土)인데 사주원국에서 남자를 만나는 기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문살(鬼門殺) 귀신이 들락거리는 기운이 작용하고 충살(沖殺) 충돌하고 재집 같은 흉살이 작용하여 결혼이 인 될 사람이니 만나게 되고 남자를 만나도 주변 환경도 알 수 없거나 예민한 성격의 사람을 만나거나 하지요.

게다가 생일 계수(癸水)가 무진(戊辰)인데 운에서 무으로 가고 있어서 귀한 자손이 없어있는 상태가 되어 남자가 와도 무정한 사람이라 결혼을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49세지나면서 사주용어로 무계합(戊癸合)하고 있고 이성과 합을 이루니 결혼 상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간여지동(干與支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어제를 서로 일어 나는 형상에 음양지차살(陰陽差錯殺)로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늦게 결혼하여도 불행하고 상부극처(喪夫剋妻)하니 재취해도 적응하기 힘듭니다. 위에서 얘기한 말을 참고하여 좋은 관계로 이어질 사람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14일 (음 6월 18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 말라. 60년생 배우자 존중하면 지나가도 덕이 생긴다. 72년생 급한 일이 생기니 대비할 것. 84년생 존재감 보여 줄 기회가 온다.

소 49년생 눈치 적당히 보는 게 좋다. 61년생 눈먼 돈이라고 현혹 받지 말라. 73년생 추진한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85년생 주변 충고에 과민반응은 금물~

호랑이 50년생 배우자 배려에 눈물이 왈칵~ 62년생 생각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74년생 지위가 올라가도 본분에 충실할 것. 86년생 큰 우를 피해갈 수 있다.

토끼 51년생 모임에 가면 어색한 만남이 기다린다. 63년생 술은 문서 들어오니 잡아라. 75년생 공적인 자리선 감정표현 자제할 것. 87년생 두드리면 꿈의 문은 열린다.

용 52년생 불편한 자리는 사양할 것. 64년생 춘추는 실물수 혹 조 좋다. 76년생 직장인은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라. 88년생 지루한 일상에 청량제 같은 일이 생긴다.

뱀 53년생 공짜는 꼭 대가가 따른다. 65년생 모임에 가면 놀라운 경험에 얼얼~ 77년생 운이 구름을 만난 격이다. 89년생 당숙인 벗과 사교적인 이야기해보라.

말 42년생 이젓사람 손실 생각은 버려라. 54년생 집 출간 만큼 이익이 풍성하다. 66년생 청산에 굳주린 지내면 칭찬이 와~ 78년생 반대파와 연대하면 손 조 좋다.

양 43년생 밀리 외활할 일이 생긴다. 55년생 모처럼 관록을 발휘해 흐뭇~ 67년생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79년생 너무 많은 게 탈이니 욕심 버려라.

원숭이 44년생 피 끓은 돈은 절대 받지 말라. 56년생 잘 길이 언덕 불청객이 나타난다. 68년생 한물 간 경쟁자가 다시 뜨니 경계하라. 80년생 이성을 만나니 횡재함이 본다.

닭 45년생 배우자와 친정이 즐겁다. 57년생 잘 믿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라. 69년생 생각은 깊게 하고 신중히 움직이어 손해 없다. 81년생 짜증이 날수록 말을 줄여라.

개 46년생 소신은 곳곳이 말고가라. 58년생 때로는 실수가 약이 된다. 70년생 하기 나도 봉상심 잃지 않도록 조심~ 82년생 직장인은 귀인 만나 꿈을 향해 질주한다.

돼지 47년생 손하에 고민이 생긴다. 59년생 투자할 땐 과대포장된 정보 조심~ 71년생 시야를 넓히면 없던 길도 보인다. 83년생 과음으로 단연 실책 주의할 것.

삼바 축구의 몰락인가?

브라질 최근 마지막 경기 10실점 "무슨 할 말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이 3~4위전에서도 완패하며 홈 그라운드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브라질은 13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마네 가린샤 국립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3~4위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세골을 내주며 완패했다. 브라질은 4강전에서 독일에 1-7 굴욕을 당한 뒤 네덜란드와의 3~4위전에서도 3실점하며 두 경기를 통틀어 10골을 내주는 졸전 끝에 64년 만에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을 4위로 마감했다.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은 1974년 독일(당시 서독)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특히 브라질은 8강전에서 척추를 다친 네이마르(바르셀로나)가 동료 응원을 위해 벤치를 지켰지만 패배를 지켜보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 또 8강전에서 경고누적으로 4강전에 결장하며 독일전 완패의 구실을 제공한 캡틴 치아구 시우바(파리 생제르맹)가 출격했지만 오히려 결승골의 빌미를 제공하는 반칙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브라질이 네덜란드에 0-3으로 패하자 한 브라질 여성 축구팬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스리백으로 후방을 튼튼히 만든 뒤 아리언 로번(뮌헨)의 빠른 발을 활용한 네덜란드의 '브라질 격파법'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반면 브라질은 4강전에 나선 선수 가운데 무려 6명을 바꾸고 네덜란드를 상대했지만 양쪽 수비 뒷공간이 번번이 뚫리고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마지막 자존심 찾기마저 실패했다.

공격수 오스카르(첼시)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3위라도 지키려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졌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 모두 슬프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도전했다"고 덧붙였다. 수비수 치아구 시우바(파리생제르맹)는 "이것보다는 더 좋게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면서 크게 아쉬워했다. 이어 "팬들에게 사과한다. 마지막에 우리는 항해 야유를 퍼부었으나 그게 정상이다. 그들도 감정이 있다"면서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고개를 떨궜다.

반면 네덜란드는 이날 승리로 역대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네덜란드는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 처음으로 3~4위전을 치렀지만 크로아티아에 1-2로 져 4위에 머물렀다.

/정성훈기자 ysw@metroseoul.co.kr

수아레스 핵이빨 사용료 52억원?

바르셀로나 특별한 조항 제시 '눈길'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루이스 수아레스(27·사진)가 특별한 조항을 맺었다.

13일 영국 주간지 선데이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수아레스가 다시 한번 상대를 물 경우 그의 연봉 1000만파운드 중 300만파운드(약 52억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수아레스는 6100만파운드(약 1064억원)에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다. 주급 역시 20만파운드에 달한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에 이은 4번째로 높은 주급이다. 바르셀로나는 이처럼 거금을 들여 영입한 수아레스가 또 한번 기행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이같은 조항을 삽입했다. 연봉의 30%를 벌금으로 우는 초강력 제재다.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스의 징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일단 수아레스는 15일 바르셀로나로 넘어갈 계획이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핵이빨' 파문을 일으킨 수아레스는 리버풀 소속이던 지난해 경기 도중 첼시 수비수인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의 팔을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정성훈기자

LA다저스 푸이그가 심판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저스 하루만에 선두 탈환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가 하루 만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다저스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서 9회말 1사 만루에서 나온 A.J. 엘리스의 끝내기 희생플라이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53승 43패(승률 0.552)가 된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51승 43패·승률 0.543)를 밀어내고 하루 만에 자리바꿈을 했다.

전날 승차는 같으나 승률에서 앞서며 11일 만에 지구 1위를 탈환했던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0-2로 완패하며 다저스와의 간격이 1게임 차로 다시 벌어졌다.

한편 이날 다저스의 야시엘 푸이그는 경기초반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정성훈기자

히딩크 네덜란드 대표팀 지휘봉

거스 히딩크(사진) 감독이 루이스 판할 감독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렌지 군단'을 이끈다.

판할 감독은 이번 대회를 마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고 네덜란드 대표팀 사령탑은 거스 히딩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맡게 된다.

1994년부터 4년간 네덜란드 대표팀을 지휘했던 히딩크 감독은 9월4일 이탈리아와의 평가전부터 본격적으로 네덜란드 대표팀 사령탑을 맡을 예정이다.

2016년 유럽선수권까지 네덜란드 대표팀을 맡게 된 히딩크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어린 팀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마치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히딩크 감독은 론 플라르(아스턴빌라), 스테판 더프레이(페예노르트), 야스퍼르 실레선(아약스), 브루누 마르팅스 인디(페예노르트) 등을 지목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대회에는 우승을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선 성적을 내야 좋은 축구에 대한 걱정도 할 수 있다"고 16년 만에 다시 대표팀을 맡게 된 각오를 밝혔다.

히딩크 감독은 25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올스타전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성훈기자

프로축구 전적 (13일)

전북	4	1	경남

▲득점 = [illegible]

제주	2	1	성남

▲득점 = [illegible]

부산	2	2	인천

▲득점 = [illegible]

프로야구 전적 (13일)

■ 잠실

한화	001	000	001	2
두산	100	000	000	1

▲승 = [illegible] ▲패 = [illegible]

■ 목동

NC	011	005	101	9
넥센	000	100	000	1

▲승 = [illegible] ▲패 = [illegible] ▲홈런 = [illegible]

■ 대구

SK	300	000	010	4
삼성	000	000	010	1

▲승 = [illegible] ▲패 = [illegible]

■ 광주

롯데	100	000	001	2
KIA	000	000	000	0

▲승 = [illegible] ▲패 = [illegible] ▲홈런 = [illegible]